



自然公園과 野生鳥〈30〉

박새

- 학명 *Parus major minor*
- 영명 Great tit

시리도록 서러운 한 겨울 산천은 이 나라에 사는 산새들에게는 가장 힘든 춘궁기이다.

마른 나무 가지에 봄물이 오르는 그날을 기다리며 무리생활로 하루에도 수킬로미터씩 표행이라는 방랑생활을 하는 박새도 허기진 배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다.

살충제 살포가 없었던 지난날 겨울나무에는 수없이 달린 풀췌기 집이 최대의 특

식이었고 깨동백같은 산열매도 저장 식품이 었다.

박새는 산림해충을 주식으로 하는 제일의 익조이다.

고산대나 저산대 가리지 않고 다니며 곤충을 탐식하다가 엄동설한에는 야산이나 인가 근처로 내려와 먹이를 찾지만 만만치가 않다.

빌딩숲으로 가린 여의도 가로수에 날아든 서너마리의 박새는 구멍가게 앞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물고 가 피자집에 모인 아이들처럼 즐거워 한다.

최근 미국의 국립공원 곳곳에 사는 너구리들이 쓰레기통을 뒤져 인스탄트 식품으로 생활을 하던 개체들은 모두 충치를 앓고 있다는 외신 보도는 예사로운 재난이 아닌성 싶다.

굶주린 겨울을 보내고 보릿고개를 맞는 이른 봄 새싹을 뜯어 먹는 박새 신세는 과거 어려웠던 우리네들이 봄나물로 허기를 채우던 시절과 다를바 없지만 잔병치레 없이 지내온 조상님들의 자연식 예찬론은 오늘에 와서 빛을 발하는것 같다.

박새는 전국 어디서나 서식하는 텃새인데 남향반이 양지쪽 마른 가지에

움이 돋으면 감미롭고 간결한 노래소리를 내는 봄의 전령이 된다.

이미 배우자를 정한 박새는 인가 근처를 기웃거리며 보금자리를 찾는데 구멍 뚫린 벽돌이나 건물의 틈, 나무구멍을 찾게 되고 대문에 걸린 우편함도 신방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둥지 형태가 다양하다.

대다수가 짐승의 털과 이끼를 물어다 산좌를 만들고 한배에 보통 6~8개의 알을 낳는 다산종이다.

겨울철에 나무에 달아주는 축산부산물물의 기름덩이를 대단히 즐겨먹고 또 인공 새집을 쉽게 이용하는 생태는 이 새가 사람과의 친화력에 높음을 말해준다.

얼어붙은 경제 한파도 이제 곧 박새노래가 높아질 즈음이면 눈녹듯 녹아 평화롭게 닥아설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



글·사진 李正雨
(삼육대학교수·동서조류연구소장)